

動的 의미에 대한 고찰

— 사전적 의미, 문헌적 의미, 임상사례를 중심으로—

정 선 영*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4학년

On Definition of Dong(動) based on Literal Meaning, Literature written by Todo Yoshimasu and Case Reports

Seon-yeong Jeong*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 The purpose of study is to define the term Dong(動) in diagnosis view.

Method : To define term Dong(動), I refer to Korean, Chinese, Japanese dictionary and Todo Yoshimasu (吉益東洞)'s writing, Yakucho(藥徵) Houkyoku(方極). Next, I search for the diagnosis definition of Dong(動) in 11 case reports.

Results : The diagnosis definitions of Dong(動) are two meanings. One is objective symptoms which are doctor can examine, trembling, movement, etc. The other is subjective symptoms which are patient's feeling, emotional problems, etc. It separates 6 meanings concretely.

Conclusions:

(1) visible moving of a focus, (2) movement of a focus, (3) appearance of abnormal secretion, (4) abnormal change of focus, (5) feel like moving, (6) change of emotion beyond patient's control.

1~4 are objective symptoms which are doctor can examine, and 5~6 are subjective symptoms which are patient's feeling.

Key Words : Dong(動), Yakucho(藥徵), Houkyoku(方極), literal meaning, diagnosis definition

*교신저자: 정선영,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777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움캠퍼스 3층 한의학과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 guk University, Sicksa-dong, Ilsandonggu, Goyang, Gyeonggi-do, Korea.
porang1004@hanmail.net.

序 論

藥徵은 일본 고방파의 대표적 인물인 吉益東洞의 마지막 저작으로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나오는 약물 중 53종의 약물에 대해 주치와 방치 및 해설을 한 본초학 서적이다¹⁾. 진단을 할 때 환자의 병증을 藥徵 속의 용어로 환원시켜 傷寒古方을 운용하는 복치의학회의 입장에서 藥徵 용어의 이해는 필수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학회에서는 藥徵 용어의 심도있는 이해를 위해 가설 설정과 임상 사례를 통한 검증, 가설의 수정과 재검증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쳐 왔다.

그 중에서도 ‘動’에 관한 연구는 수차례의 가설 설정과 반론, 수정의 과정을 거쳐 해석의 폭이 넓어졌으나 아직 학회 내에서 공인된 정의는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PTSD 등의 신경정신과적 증상으로 해석하거나, 절독 주변의 움직임, 심박동이나 복대동맥의 항진 등의 복후, 혹은 용골모려의 경향성인 몽교 실정, 탈모 설사경향, 신경증상, 속쓰림 등 단편적 가설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動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고찰하고, 이를 吉益東洞의 문헌-方極, 藥徵에 나타난 動의 의미, 임상 사례에서 진단에 쓰인 動의 의미와 비교하여, 진단 시 유의한 것과의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研究方法

1. 가설설정

첫째로 한의학 용어의 의미는 당대 사람들

에게 보편적으로 쓰였던 일상용어의 의미와 대체로 일치한다. 한의학의 진단방식은 辨證으로 환자가 증상에 대해 표현하는 용어의 의미와 의사가 받아들이고 기술하는 의학용어의 의미가 일치한다. 즉 動이라는 의학용어의 의미 파악은 한의학이 있었던 한, 중, 일 세 나라의 일상어인 사전적 의미파악으로 가능하다.

둘째로 動은 사전을 보면 언어적 의미가 다양하다. 그러므로 진단 시 動은 환자의 단일 병증만을 의미하지 않고 언어적 의미에 따라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신경정신과 증상, 복후 등 외에도 더 넓게 動 증상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吉益東洞의 저작인 方極, 藥徵 내에 쓰인 동일 단어는 동일한 의학적 의미를 지닌다. 즉 方極 내에 쓰인 動과 藥徵 내에 쓰인 動은 같은 의학적 개념을 가진다는 것이다.

넷째로 藥徵에서 한 약물이 主治하는 바는 그 약물의 旁治를 통해 역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하나의 약물이 가지고 있는 主治 이외의 다양한 증상인 旁治를 치료하는 능력은 한 약물이 지닌 하나의 성에서 파생된 부수적인 능력[性之所枝而岐]이므로²⁾ 용골, 모려의 主治인 動의 의미는 용골 모려의 旁治를 통해 역추론할 수 있다.

2. 참고자료

먼저 네이버의 한중일 사전에서 動의 언어적 의미를 검색하여 진단적으로 유의한 의미만을 취하였다. 다음으로 吉益東洞의 方極(1764), 藥徵(청홍, 2006)에서 動이 언급된 부분을 찾아내어 의학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고찰하였다.

1) 吉益東洞 著 이정환 외 1인 譯 藥徵 清紅, 2006. 10

2) 하나의 성에서 파생된 부수적인 능력[性之所枝而岐]: “방치(旁治)”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복지의학회 임상게시판에서 動 처방의 유효 치험례 11개에서 진단기준으로 쓰인 動的 의미를 고찰해보았다.

3. 연구의 한계

본 논문에서는 動的 의미에 대한 논거로 학회 게시판의 임상례를 들고 있다. 상한고방 중 動 처방 8개에 대한 임상례의 수는 많지 않았으며 그 중에서도 유의하다고 판단한 11례에 근거하였는데 이는 논거로 삼기에는 수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

또 학생인 필자의 임상경험 부족으로 인해 본 논문에서 밝힌 動的 의미를 임상적으로 검증해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本 論

1. ‘動’의 사전적, 문헌적 의미 고찰

1.1 ‘動’의 사전적 의미 고찰

1.1.1 한국어에서 動的 의미

1. 움직이다 2. 옮기다 3. 흔들리다 4. 동요하다(動搖-) 5. 떨리다 6. 느끼다 7. 감응하다(感應-) 8. 일하다 9. 변하다(變-) 10. 일어나다 11. 시작하다(始作-) 12. 나오다 13. 나타나다 14. 어지럽다

1.1.2 중국어에서 動的 의미

1.[동사] (사물이) 움직이다. 흔들리다. 2.[동사] (사물의 위치·순서·모양·상태 등을) 바꾸다. 3.[동사] (사람이) 움직이다. 행동하다. 동작하다.

1.1.3 일본어에서 動的 의미

1. 동요시키다. 감동시키다. 2. [명사] 동. 움직임. 3. 움직이다, 일을 하다. 돌리다. 돌아가다

動에는 다양한 뜻이 있으나 의학적으로 유의한 것만을 밑줄로 표기하였다. 특히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의 밑줄 친 부분에서 動的 공통되는 의미는 첫째로 사물의 움직임으로 움직이다, 흔들리다. 떨리다, 변하다 등의 의미가 있다. 둘째로 감정의 변화로 느끼다, 감응하다, 동요하다, 감동시키다 등의 의미가 있다. 진단의 관점에서 볼 때는 (1)의사가 확인할 수 있는 병소의 움직임이나 이동, (2)환자 자각적인 움직임의 느낌이나 감정의 변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1.2 ‘動’의 고법의학에서의 문헌적 고찰

1.2.1 方極에 나타난 ‘動’의 의미

動이 언급되어 있는 方極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桂枝加龍骨牡蠣湯

治桂枝湯證, 而胸腹有動者.

桂枝去芍藥加蜀漆龍骨牡蠣湯

治桂枝去芍藥湯證, 而胸腹動劇者.

桂枝甘草龍骨牡蠣湯

治胸腹有動急迫者.

牡蠣澤瀉散

治身體水腫, 腹中有動, 渴而小便不利者.

牡蠣湯

治麻黃甘草湯證, 而胸中有動者.

柴胡桂枝乾薑湯

治小柴胡湯證, 而不嘔, 不痞, 上衝而渴,

腹中有動者.

天雄散

治小便不利, 上逆, 臍下有動, 惡寒者.

蜀漆散

治寒熱發作有時, 臍下有動者.

桂枝茯苓丸

治拘攣, 上衝, 心下悸, 經水有變, 或胎動者.

真武湯

治心中躁, 身瞤動, 振振欲擲地, 小便不利, 或嘔, 若下利, 若拘痛者.

防己茯苓湯

治四肢蠱蠱動, 水氣在皮膚, 而上衝者.

方極에 ‘動’이 포함된 처방은 총 11개로 용골모려제는 8개 처방, 용골모려제가 아닌 것은 3개 처방이다.

용골모려제의 8개 처방에서 動은 胸腹, 胸中, 腹中, 臍下의 부위에 나타나는 말과 함께 쓰여 특정 신체부위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증상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動’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포하는 사전적 의미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方極의 표현만으로는 ‘胸腹, 胸中, 腹中, 臍下에 나타나는 움직임 또는 변화’라고 막연하게 추측할 수밖에 없다.

용골모려제가 아닌 3개 처방의 공통약물은 茯苓으로 구성약물의 藥徵과 ‘動’이 들어간 湯證을 볼 때 胎動, 身瞤動, 四肢蠱蠱動의 湯證에 상응하는 약물은 茯苓으로 보인다. 세 처방의 方極에서 ‘動’은 茯苓이 주치하는 병독인 悸及肉瞤筋惕의 증상을 표현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즉 임신부가 자각적으로 느끼는 태아의 움직임, 살의 불수의적 떨림, 사지의 불수의적 떨림을 나타낸다. 여기서 ‘動’은 身瞤動, 四肢蠱

蠱動 등 타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병소의 육안 상 움직임과, 胎動 등 환자가 자각적으로 느끼는 움직임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뜻을 나타낸다.

1.2.2 藥徵에 나타난 動의 의미

龍骨

主治臍下動也。旁治 煩驚失精。

[考徵]

桂枝去芍藥加蜀漆龍骨牡蠣湯證曰：驚狂、起臥不安。

桂枝加龍骨牡蠣湯證曰：失精、少腹弦急。

柴胡加龍骨牡蠣湯證曰：煩驚。

桂枝甘草龍骨牡蠣湯證：煩躁。

右歷觀此諸方，龍骨所治驚、狂、煩躁、失精也。

龍骨所治 驚狂 煩躁 失精也。그러나 臍下有動이 있어야 한다.

牡蠣

主治胸腹之動也。旁治驚狂、煩躁。

[考徵]

桂枝去芍藥加蜀漆龍骨牡蠣湯證曰：驚狂、起臥不安。

柴胡薑桂湯證曰：微煩。

桂枝甘草龍骨牡蠣湯證曰：煩躁。

柴胡加龍骨牡蠣湯證曰：煩驚。

牡蠣所治 驚狂 煩躁로 龍骨과 별 차이가 없다. 胸腹之動이 주치라는 것을 명심하라.

藥徵에서 ‘動’은 용골과 모려의 주치 臍下動, 胸腹之動으로 나타난다. 이 표현만으로 ‘動’의 의미를 알기에는 方極과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용골과 모려의 방치를 살펴보면

桂枝加龍骨牡蠣湯의 ‘動’은 失精、少腹弦急으로, 桂枝去芍藥加蜀漆龍骨牡蠣湯, 柴胡加龍骨牡蠣湯, 桂枝甘草龍骨牡蠣湯, 柴胡薑桂湯의 ‘動’은 驚狂, 煩驚, 煩躁, 微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考徵의 말미에 ‘용골의 주치는 배꼽 아래의 동기(動氣)이고 경광, 실정, 번조는 부수적으로 치료하는 증상이다. 학자들은 이 점을 살펴라.’³⁾ 고 하여 ‘動’은 驚狂 煩躁 失精 등 두 약물의 旁治를 포괄하면서 별도로 나타나야 하는 주증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즉 臍下動은 타각적으로 확인가능한 臍下の 신체증상인 失精, 少腹弦急과 환자 자각적인 신경정신과적 증상인 煩驚을 유발하는 병독이자 주증이다. 胸腹之動은 환자 자각적인 신경정신과적 증상인 驚狂 煩躁을 유발하는 병독이자 주증으로, 병위는 흉부 복부가 정해져 있지 않다.

2. 動的 의미에 대한 사건

動的 사전적 의미는 진단적 관점에서 볼 때 의사가 확인할 수 있는 병소의 움직임이나 이동, 환자 자각적인 움직임의 느낌이나 감정의 변화 두 가지이다.

이를 動的 문헌적 의미와 연계시켜 보면 사전적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알 수 있다. 의사의 타각 증상으로서 動은 냉대하나 失精 등 병소의 비정상 분비물의 출현으로, 小腹弦急 등 병소의 이상변화로 생각할 수 있다. 자각 증상으로서 動은 煩躁, 驚狂, 微煩 등 신체증상이 감정적 불편함을 동반하는 신경정신과적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胸腹, 胸中, 腹中, 臍下の 부

위에 나타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 ‘動’이 驚狂 煩躁 失精과 별도로 나타나야 하는 주증이라는 측면에서 사전적 의미를 근거로 넓게 해석해보면 타각 증상으로서 臍下動과 胸腹之動은 茯苓의 悸와 유사하게 胸部나 心下部, 臍下の 대동맥 박동 등 병소의 육안 상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임상례에 나타난 動的 의미 고찰

動的 사전적 의미와 문헌적 의미를 토대로 살펴본 복치의학회 임상계시판의 動 처방 유효치험례 11개의 진단기준은 다음의 6가지로 개괄할 수 있다.

움직임과 이동과 관련된 의사 자각적 신체 증상으로는

- (1) 병소의 육안 상 움직임: 움직이다, 흔들리다, 떨리다 -> 복부의 박동(悸와 유사), 身觸動, 四肢轟轟動
- (2) 병소의 이동: 옮기다
- (3) 비정상 분비물 출현: 나오다, 나타나다 -> 냉대하, 失精
- (4) 병소의 이상변화: 변하다(變--)
-> 小腹弦急

환자 자각적인 느낌과 감정 변화, 신경정신과적 증상으로는

- (5) 움직이는 느낌: 물체의 움직임을 느끼다 -> 胎動, 장기이동, 자궁하수
- (6) 신경정신과적 병인: 동요하다(動搖--), 감정적 충격을 느끼다

3) 吉益東洞 著. 大塚敬節 矢數道明 共編. 藥徵. 近世漢方醫學書集成10. 東京. 名著出版. 1979. p. 254.

“右歷觀此諸方. 龍骨所治. 驚狂煩躁失精也. 無容疑者. 爲則每值有其證者. 輒用之而間有無效者. 於是乎中心疑之. 居數歲始得焉. 其人臍下有動而驚狂. 或失精. 或煩躁者. 用龍骨劑. 則是影響. 其無臍下動者而用之. 則未見其效. 由是觀之. 龍骨之所主治者. 臍下之動也. 而驚狂失精煩躁. 其所旁治也. 學者審諸.”

-> 정신적 충격(驚, 恐), libido의 억압 등에 의한 뚜렷한 발병원인과 시점이 존재한다. 그 이후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증상-煩躁, 驚狂, 微煩, 失精, 냉대하, 설사, 탈모 등이 발현된다.

임상례에서 動의 진단기준으로 삼은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動: 옮기다 -> 병소의 이동

(1) 역류성 식도염에서 기인한 10년 된 등통증-시호가용골모려탕

김00, 51세 남, 회사원

(중략) 瓜蒌薤白半夏湯을 드린 이유가 바로 룰아웃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이 背痛의 발병 초기부터 발생했던 背痛인지, 아님 역류성 식도염증세가 호전이 되고 나서 이후에 그것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고 이동한 것인지 말이지요. 왜냐면 병이 오래되다보니 환자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환자의 증상을 물어보니 처음에 역류성 식도염 증상은 가슴부위로 많이 왔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거의 없어졌는데 그것이 생기는 패턴과 유사하게 음식을 먹은 다음 등쪽으로 증상이 옮겨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음식을 먹을때마다 아파오는가를 물으니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언제 아프냐를 자세히 물으니 패턴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중략) 병이 胸부위에서 背부위로 옮겨갔습니다. 動입니다.

(2) 탈북자, 고문후유증으로 인한 난시증-시호가용골모려탕

(중략) 병의 추이를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두통과 시력의 저하가 있었느냐 물으니 고문 이후라고 합니다. 고문할 때 이 부분이 많이 아팠냐고 물어보니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냥 두통이 있을 뿐 시력저하는 없었고 몸이 붓고 그런 증세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중국으로 탈출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더니 한국에 와서는 더 심해졌다고 하더군요. 즉 처음 발생했을 때 병이 나중에 그 상황에서 벗어남에 따라서 시력부분으로 병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動”이 있는 것입니다. (중략)

(3) 3년 된 등통증 경찰아저씨 - 시호가용골모려탕

(중략) 문진으로 onset에 관한 철저한 추적에 들어갑니다. 3년전 조깅을 하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 전엔 아픈데도 없이 건강하다가 갑자기 아무런 원인이 없이 쓰러진 후 처자식을 두고 먼저 가지 않을까 두려웠다. 그 후로 순찰만 하면 등이 아파진다고 합니다. 조깅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쓰러졌을 당시의 일에 대해 크게 두려워한다거나 아직도 가슴을 쓸어내린다거나 이런 증상은 없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저런 말씀하실 때도 재밌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소심하다거나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중략)

3.2 動: 물체의 움직임 느끼다 -> 환자가 자각적으로 느끼는 움직임, 장기의 이동

(1) 자궁하수 (7cm내려앉음) -계지가용골모려탕-

지난달 말쯤 여성 고객이 래원했습니다. 주소증은 출산 후부터 시작된 자궁하수증이었습니다. 2008년 6월 처음 출산을 했는데

이후 약간 불편한 감이 있다가 2010년 가을 쯤 무거운 아이를 안았더니 갑자기 아래쪽이 쑥 빠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봤더니 자궁이 7cm정도 아래로 내려와 있다고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합니다. (중략) 자궁하수 때문에 움직이기도 힘들고 조금만 힘을 쥐도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중략) 이런 경우 처방은 桂枝加龍骨牡蠣湯입니다. (중략)

3.3 動: 감정이 동요하다(動搖-), 감정적 충격을 느끼다.

-> 신경정신과적 원인으로 인한 신경정신과적 혹은 신체적 증상 발현

정신적 충격(驚, 恐), libido의 억압 등에 의한 뚜렷한 발병시점이 존재하며 그 이후 증상(驚狂, 煩躁, 설사 등) 발현된다. 신경정신과적인 발병시점이 뚜렷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특징적으로, 발병요인에 대한 집착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1) 이혼 위기의 부부-계지거작약가축칠용골모려구역탕

김** 39세여. 164센티 50킬로

남편과의 불화 이후로 증상발현. 한숨도 못 잔다. 남편을 죽이고 싶다. 식욕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미식거린다. (중략) 흥부증상으로는 잘 놀란다, 브래지어는 답답해서 풀고 있어야 편하다, 수면은 커피2잔 이상 마시면 잘 못 잔다. 전신은 두피가려움, 비듬, 탈모, 냉이 많은 편, (중략) 구역탕 30일분 투여

(2) 신경성 대장염-계지가용골모려탕-

이00, 36세 남 (175cm/82kg), 회사원

주소증은 15년 이상된 스트레스성 설사로 (중략) 오랜 기간동안 앓았던 병이니 크게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언제부터 설사가 시작된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꼼꼼히 생각하면서 군대에서부터 이 병이 시작되었다고 하더군요. 군대에서 어떤 일 이후에 생겼는지 물으니 전에 군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행정적으로 뭔가 잘못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병대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긴장을 많이 해서 그 이후로 설사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끔 꿈에서 그때 조사를 받는 꿈을 꾸면서 깜짝 놀라 일어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상기한 이유로 계지가용골모려탕을 투여했습니다.

(3) 5년간 깎아본 적이 없는 손톱-시호가용골모려탕

@@@. 10세. 여. 122.5cm 29kg.

그동안 침치료를 10회 이상 진행하면서,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손톱을 쉽게 보여주지 않는 것, 치료실에서 비교적 어두운 곳이 있는데, 언젠가 그 자리에서 한번 침치료 받은 이후로는 계속 그 자리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대기실로 보내고 말씀을 청했더니, 사실은 말씀 안하신 게 있다고 하십니다.

“ @@@가 5-6세 무렵에 자위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자주 했었고, 동생이 와서 일러바칠 정도로 수치심도 없고, 눈에 안 보인다 싶으면 어딘가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별문제 아니려니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너무 심하다고 판단하여, 온가족이 고민한 끝

에 그것을 못하도록 했으며, 그 이후에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잘못된 건가요?”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리비도(libido)가 괴롭힘을 당해서 나타나는 강박증이 동(動)의 개념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안과 너무 잘 접목된다는 판단하에, 제하(臍下)에서 시작된 동(動)이므로 용골을 떠올리게 되었으며, 웅크리는 자세가 결국 련(攣)을 해결하는 약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흉협고만(胸脇苦滿)을 해소하는 약을 사용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하여, 시호가용골모려탕을 투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략)

(4) 정신분열증 - 계지거작약가축칠용골모려구역탕

김00, 남, 22세, 175cm 63kg

(증상)

주소증- 조울증, 과대망상형 정신분열증, 미분화형 정신분열증

-항상 공부를 잘하는 누나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으며 2년 전 고등학교 졸업 후 나를 성공해 보겠다고 집을 나와 독립생활을 시작하였다. 어린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좌절감을 많이 느꼈고 그 이후 증상이 발병하였다. 본인이 롯데그룹 실장이라는 등 과대망상증이 나타나 정신병원에 입원 1달하여 호전되는 듯했다. 그러나 그 이후 자기 세계에 빠져 대인기피증, 무기력증이 나타남- 말수가 적고 동작이 느리고 자기표현력이 떨어지고 대화가 안되며 불안해 하고 혼자 울거나 웃기도 한다. (중략)

(5) 불면증- 모려탕

임00, 61세 남자, 휴직중

(중략) 불면증으로 오신 고객입니다. 신체적으로 전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몸이 만들어내는 불면증이 아니고 기억이 만들어내는 불면증입니다. 과거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본 이후로 그때의 기억 때문에 정신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胸腹之動에 의한驚이 존재하는 분입니다. 정신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신을 잃지 않게 해주면 됩니다. 교감신경을 높여주면 되는 것이지요. 상기의 이유로 牡蠣湯 투여. (중략)

(6) 공황장애(예기불안-과호흡증후군)-모려탕 목00, 22세 남(172cm/67kg), 학생

상기한 환자는 공황장애 환자인데 특히 예기불안이 심한 환자입니다. 전에 과호흡 증후군으로 인해 공황이 왔고 현재 그 증세가 또 발생할까 무서워서 계속해서 약을 가지고 다녀야만 진정이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처음 공황이 올 때의 과호흡 상태를 물어보니, 숨이 들어쉬어 지는데 내쉬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지금도 숨을 들이쉬는 건 괜찮은데 내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황이 또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는거죠. 이 환자의 증세가 바로 “動”입니다. 그 중 흥부의 動이니 牡蠣인 것이지요. (중략)

3.4 動: 움직임이다, 흔들리다, 떨리다 -> 병소의 육안 상 움직임, 복부의 박동(悸와 유사)

(1) 학교폭력 피해아이 - 계지거작약가축칠용골모려구역탕

結毒이 動하는 것이 아니라, 結毒이 있음에

上下左右에 반드시 動이 있는 것이다. 이 아이 교수님 복진하시고는 "동이 있네,"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도 만져보았는데 확실히, 배꼽 위 가느다란 결실이 잡히고 만지면 굉장히 통증을 호소합니다. (중략)

結 論

1. 動은 현재 신경정신과적 증상, 신체적 증상, 복후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되고 있으며 의미들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진단에서는 각 의미들을 증차적으로 쓰는 것으로 보인다.
2. 動의 사전적 의미는 의사 타각적인 병소의 움직임이나 이동, 환자 자각적인 움직임은 느낌이나 감정의 변화이다.
3. 動의 사전적 의미는 藥徵, 方極에서 각각 타각증상인 냉대하, 失精, 小腹弦急과 자각증상인 煩躁, 驚狂, 微煩으로 구체화된다.
4. 藥徵의 ‘용골의 주치는 배꼽 아래의 동기(動氣)이고 경광, 실정, 번조는 부수적으로 치료하는 증상이다. 학자들은 이 점을 살피라.’ 구절에 근거하여 動을 병소의 대동맥 박동향진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5. 動의 사전적, 문헌적 의미를 임상례에 적용해보면 다음의 6가지로 개괄할 수 있다.

의사 타각적 움직임, 이동, 신체적 증상	1) 병소의 육안 상 움직임: 움직이다, 흔들리다, 떨리다 -> 복부의 박동(悸와 유사), 身騫動, 四肢蕩蕩動
	2) 병소의 이동: 옮기다
	3) 비정상 분비물 출현: 나오다, 나타나다 -> 냉대하, 失精
	4) 병소의 이상변화: 변하다 -> 小腹弦急
환자 자각적 느낌, 감정 변화, 신경정신과적 증상	5) 움직이는 느낌: 물체의 움직임을 느끼다 -> 胎動, 장기이동, 자궁하수
	6) 신경정신과적 병인: 동요하다(動搖-), 감정적 충격을 느끼다 -> 정신적 충격(驚, 恐), libido의 억압 등에 의한 뚜렷한 발병원인과 시점이 존재한다. 그 이후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증상-煩躁, 驚狂, 微煩, 失精, 냉대하, 설사, 탈모 등-이 발현된다.

參考文獻

1. 吉益東洞, 方極, 1764
2. 吉益東洞 著 이정환 외 1인 譯, 藥徵, 청흥, 2006. 10
3. 네이버 한자사전
<http://hanja.naver.com/hanja?q=%E5%8B%95>
4. 네이버 중국어사전
<http://cndic.naver.com/search/all?q=%E5%8B%95>
5. 네이버 일본어사전
<http://jpdic.naver.com/search.nhn?query=%E5%8B%95>

6. 복치의학회 임상게시판 글, 역류성 식도염에서 기인한 10년된 등통증 -시호가용골모려탕- 부제:동에 관하여 2
http://www.bokchi.com/bbs/bbs/board.php?bo_table=com_imsang&wr_id=9383&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D4%D1&sop=and&page=3
7. 복치의학회 임상게시판 글, 탈북자, 고문후유증으로 인한 난시증 -시호가용골모려탕- "부제: 動에 관하여
http://www.bokchi.com/bbs/bbs/board.php?bo_table=com_imsang&wr_id=9380&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D4%D1&sop=and&page=3
8. 복치의학회 임상게시판 글, 3년 된 등통증 경찰아저씨 (부제 : 동에 관하여)
http://www.bokchi.com/bbs/bbs/board.php?bo_table=com_imsang&wr_id=6563&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D4%D1&sop=and&page=4
9. 복치의학회 임상게시판 글, 자궁하수 (7cm 내려앉음) -계지가용골모려탕-
http://www.bokchi.com/bbs/bbs/board.php?bo_table=com_imsang&wr_id=13910&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D4%D1&sop=and
10. 복치의학회 임상게시판 글, 이혼 위기의 부부-계지거작약가축칠용골모려구역탕
http://www.bokchi.com/bbs/bbs/board.php?bo_table=com_imsang&wr_id=14695&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D4%D1&sop=and
11. 복치의학회 임상게시판 글, 신경성 대장염 -계지가용골모려탕-
http://www.bokchi.com/bbs/bbs/board.php?bo_table=com_imsang&wr_id=11642&sca
12. 복치의학회 임상게시판 글, 5년간 깎아본 적이 없는 손톱. 動.
http://www.bokchi.com/bbs/bbs/board.php?bo_table=com_imsang&wr_id=12142&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D4%D1&sop=and&page=2
13. 복치의학회 임상게시판 글, 정신분열증
http://www.bokchi.com/bbs/bbs/board.php?bo_table=com_imsang&wr_id=11109&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D4%D1&sop=and&page=2
14. 복치의학회 임상게시판 글, 불면증-모려탕
http://www.bokchi.com/bbs/bbs/board.php?bo_table=com_imsang&wr_id=11068&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D4%D1&sop=and&page=3
15. 복치의학회 임상게시판 글, 공황장애(예기 불안-과호흡증후군) -모려탕-
http://www.bokchi.com/bbs/bbs/board.php?bo_table=com_imsang&wr_id=5735&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tx=%D4%D1&sop=and&page=4
16. 복치의학회 임상게시판 글, 역시 요즘 아이들 무섭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아이. (written by 인턴)
http://www.bokchi.com/bbs/bbs/board.php?bo_table=com_imsang&wr_id=8355&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D4%D1&sop=and&page=3
17. 李政桓 白裕相 丁彰炫, 약징을 통해 본 길익동동의 의학사상 연구II - 길익동동의 약물관 -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1). p.128-136